

최고의 선물! 어촌캠프!!

갯벌생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딱! 이라며 이모의 추천으로 어촌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발표가 되는 날까지 두근두근! 어촌 캠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아갈 듯 기뻤습니다.

캠프 첫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잠시, 소감을 발표할 사람을 묻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촌 체험을 참가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열심히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으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순간은 떨렸지만 여러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한 덕분인지 내 스스로가 뿌듯했고 2박 3일이 더 기대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는 여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엄마는 계속 걱정하셨고, 엄마와 누나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는 순간부터 신이나 아이스크림과 김밥을 먹으며 긴 시간 버스를 타는 것도 잊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팀원들과 숙소로 왔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자는 것이 어색했지만 무사히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바다를 청소하는 봉사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먹는 아침은 꿀맛이었습니다.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듣고 드디어 갯벌체험을 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독살안에서 물고기 잡기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돌안에 껴있는 물고기를 발견했고 짹궁과 함께 잡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족대을 펼쳐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 놓고 잡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마리를 잡아 우리는 가장 많이 잡게되어 신이났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맛조개와 조개 잡기였습니다. TV에서 봤던 맛조개 잡기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잡아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호미로 구멍이 보이면 살살 파고 구멍에 소금을 넣은 다음 맛조개가 빠꼼 나오면 손으로 잡아 빼는 것이었습니다. 빠꼼 나왔을 때 맛조개를 빼내는 것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았습니다. 10마리밖에 못 잡아 아쉬웠지만 다음 일정을 위해 숙소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체험을 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시간 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갯벌체험 일정을 마치고 어촌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 율동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각자 할 일을 나눠 노래를 완성하니 뿌듯했습니다. 우리 모둠이 제일 잘 만들었다는 칭찬에 떨 듯이 기뻤습니다. 강남스타일 노래까지 틀어주셔서 부끄러움도 잊은 채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

루 사이 많이 친해진 친구들과 마지막 밤이라서 늦은 밤까지 떠들고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도 바다 청소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많이 치운 것 같았는데 쓰레기가 또 생기다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아쉽기만 했지만 처음 해보는 염전 체험 또한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소금이 높이 쌓여있는 모습이 마치 산 같았습니다. 한번 찍어 먹어보았는데 첫맛은 짜고 끝맛은 달고 맛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염전에 들어갔는데 발이 닿는 순간 너무 따가워 놀랐습니다. 대파를 이용해서 소금을 모았고, 안쪽에 높이 쌓여있는 소금에 올라가 보았는데 엄청 따가웠습니다. 평소 먹었던 소금이 이렇게 따깝다니.. 신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집어 먹은 소금 때문인지 입안에 짠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염전 체험이 끝나고 집으로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아쉬운 마음에 밥을 먹으면서도 슬펐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곳에 가서 엄마를 보니 반가웠지만 지하철로 가는 순간부터 벌써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캠프가 끝이라는 것이 슬프긴 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는 것에 기뻤고, 방학 동안 어촌캠프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사진을 보며 즐거웠습니다.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체복에 적어주신 사인도 평생 간직할게요!!

